"추위가 오기 전 새 보금자리 지어주셔서 감사해요"

국제로타리 3670지구 이리동로타리클럽
익산시 율동마을 러브하우스 12호점 준공

국제로타리 3670지구 이리동로타리클럽이 13일 익산 황등면 율동마을에서 러브하우스 12호점 준공식을 가졌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 이리동로타리클럽(회장 강영수)이 13일 황등면 율동마을에서 러브하우스 12호점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제로타리3670지구 이군형 총재, 황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옥산 민간위원장 및 로타리 회원과 지역주민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러브하우스 준공까지 애써준 유공자들에 대하여 감사패 전달 및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이리동로타리 러브하우스 12호점으로 선정된 가구는 고령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로 일용근로자인 자녀와 장애가 있는 며느리, 초·중학생인 손자녀 등 3대가 낡고 노후 된 주택에서 여러 차례의 수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여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세대의 어려움을 알게 된 이리동로타리클럽은 현장 실사를 통하여 러브하우스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추위가 오기 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지난 10월2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회원들은 주말도 반납하고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러브하우스 12호점은 이리동로타리클럽의 지역사회 사랑운동에 동참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익산지사, 진영환경, 금강공사, 덕산레미콘, 주택문화창의센터, 익산지역자활센터의 도움과 동로타리 회원들의 가구 및 가전제품 기부등이 더해져 사업의 의미가 더 크다.

러브하우스 12호점 준공식에서 강영수 회장은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준공이 되어 한 가정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돼 기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준 이리동로타리 회원과 나눔에 동참해 준 지역사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철웅 부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이리동로타리클럽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리동로타리클럽의 러브하우스 사업은 회원들의 자발적 나눔참여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2006년 1호점을 시작으로 12년째 이어져 올해 12호점이 완공되었다. /익산=우병희 기자

숭고한 학도병의 애국정신 기리며

정읍시 산내무영용사 묘역에서 추념식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13일 산내면 매죽리 산내무명용사묘역에서 6.25당시 산화한 150여명의 학도병의 넋을 달래고 기리는 추념식을 갖고 올해 마지막 보훈행사를 마쳤다.

이날 추념식은 고(故) 허병욱 씨의 자제분인 허재원씨의 도움으로 거행하였으며, 유진섭 시장과 최낙삼 정읍시의회의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이 참여하여 전사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년도에는 고(故) 허병욱 씨의 차남이자 전 서울시의회 의원인 허기회 씨와 서울 관악구 주민, 6.25 참전용사회원 등 80명이 추념식을 함께하며 선열들의 뜻을 기리었다.

6.25 당시 국군 제11사단 13연대 3대대 12중대 소속 학도병 150여명 지리산 일대에 잔류한 인민군을 소탕하기 위해 1950년 11월 13일 산내면 하매마을 앞산 전투에 투입됐으나 전원이 장렬하게 산화했다.

이들 호국용사의 시신은 근처 숯구덩이 속에 방치되어 오던 중 1951년 7월경에 지역주민인 고(故) 허병욱 씨가 남아있는 46위의 시신을 수습하여 현재의 장소로 안치했다. 그 뒤 허 씨는 1987년 10월 13일에 묘역과 추모비를 건립하고 합동 위령제를 봉행하여 오게 되었다. 한편, 육군본부 전사자 유해발굴단에서는 2006년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유해 발굴작업을 실시하여 유해 4구와 유류품 14점을 발굴하여 임실 호국원에 안치하여 오다 2007년도에 서울 국립현충원 무명용사 묘역에서 영면토록 했다.

시에서는 추모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올해에는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했다.

유 시장은 추도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애족정신을 계승발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호원대, 멕시코 진출 자동차제조업 중간관리직 취업연수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외교부 등록 사단법인인 한-중남미협회(회장 신숭철)와 MOU를 맺고 '멕시코 자동차제조업 중간관리직 취업연수과정'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K-Move 사업의 일환인 '중남미 지역 취업연수 사업'은 최근 8년간 영남권과 충청권에서는 몇 차례 있었으나 호남권에서 진행하기는 이번이 최초이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은 군산지역의 자동차와 조선업의 위기에서 비롯된 실업문제와 지역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서 국비 특별 추가 지원을 받아 참여하는 연수생에게 국내외 7개월간 연수비와 교재비, 국내 합숙비, 보험료, 취업비자 신청비 그리고 멕시코 항공료와 정착 지원금까지 제공한다.

또한 연수과정 수료생에게는 멕시코에 진출한 기아자동차, LG전자 등 대기업 현지 공장과 수많은 한국 협력업체와 무역업체에서 생산, 품질, 총무, 회계, 영업, 물류 분야 중간관리직으로 취업을 알선한다.

연수 참여대상은 고졸이상(병역필 및 면제자에 한함) 또는 대학(2~4년제)졸업자이거나 최종 학년 재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군산, 익산, 전주 지역 소재 대학 출신이나 지역민중 GM대우 및 협력업체 퇴직자를 우선 선발하게 된다.

서류접수는 오는 21일까지이며 23일~24일에 대면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보건소, 고혈압 · 당뇨교실 1일캠프 성료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 예방 관리를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1·2기 중 비조절군과 지속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30명을 선발하여 13일 고혈압·당뇨교실 1일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고혈압·당뇨 1일 캠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6개의 팀(장수, 튼튼, 활력, 최고, 일등, 건강)을 구성하여 체험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초 검진(혈압, 혈당 측정)을 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식생활 습관이 중요한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전문영양사와 함께 열량, 염도를 낮춘 건강식 도시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체조 전문강사와 함께 추운 겨울 실내에서도 가능한 효과적인 실내운동법과 근력운동법을 교육하였고, "고혈압·당뇨, 도전! OX 퀴즈"를 통해 그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기회를 갖고 최종 3인에게 시상하여 참석한 교육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했다.

김제시보건소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1층 회의실에서 고혈압·당뇨 건강교실을 상설 운영 중으로, 혈압·혈당 측정은 물론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관리 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니 만성질환의 예방과 올바른 관리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김제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진안 상전면, 지사마을 찾아 농촌일손돕기

진안군 상전면(면장 최경진)과 문화체육과은 직원들은 13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전면 지사마을을 찾아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20여명의 직원들은 추병규씨 고추밭(6,600㎡)에서 고추포장과 고추대와 비닐을 제거하는 등 농가일손을 도왔다.

일손 도움을 요청한 추병규씨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적기에 일손을 도와 적기에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경진 면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손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익산경찰서, 명예경찰소년단과 함께 임실호국원 체험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13일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 주관 명예경찰소년단 40여명이 참여하는 국립묘지 체험활동을 가졌다.

이번 현장체험 학습은 명예경찰소년단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르는데 있으며 또래지킴이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주 서장은 '기본과 원칙이 존중되는 치안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민의 안전과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친절한 경찰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명예경찰소년단이 멋진 경찰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정읍소방서, 불조심 강조의 달 맞아 대형화재취약대상 방문지도

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지난 11일 정읍시 시기동에 위치한 정다운요양병원을 방문해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 방화문 점검, 자위 소방대 조직과 운영방안,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매뉴얼 이행, 관계자에게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지도 등이다.특히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피계획 수립과 미끄럼대 등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 설치를 권장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향을 위해 힘써주셔서 고마워요"

고창 애향운동본부 애향대상 증정식
애향대상에 故조병채 고창병원장
자랑스런 고창인상에 해수부 김양수 차관

고창군 애향운동본부가 13일 고창동리국악당에서 제9회 애향대상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요인사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고창 영선고 사물놀이패의 축하공연과 '인문학 도시 고창'에 걸맞은 조순임 고창군 낭송문학협회장의 시낭송으로 시작된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애향운동 헌장 낭독, 재직기념패 및 임원 위촉장, 지회장 임명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나눔과 봉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울력한 심원면지회가 '우수지회상'을 수상했으며, 고향의 발전과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기여한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이 '자랑스런 고창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대미를 장식한 '애향대상'에는 평생을 의술로 봉사하며, 지역의 인재와 후진양성을 위해 헌신한 故조병채 고창병원장이 수상했다.

안재식 본부장은 "애향운동본부회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고향을 잘 가꾸고 다듬으면서 더 나은 지역, 모두의 꿈이 이뤄지는 고창군을 위해 애향심을 발휘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유기상 군수는 "애향운동본부에서 2010년부터 시작한 애향대상은 의향, 인향의 고장인 우리 고창군의 한해를 빛낸 인물을 선정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고창사랑과 지역발전에 헌신해준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애향운동본부 회원들이 우리군을 이끄는 지도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따뜻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군민의 자긍심이 높은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애향운동본부에서는 해마다 군민화합 교례회와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대표단체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랑스런 고창인을 선정하여 애향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